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김지혜*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출 청소년 198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비행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한편, 가출관련 변인과 사회적 관계 변인을 함께 고려하였고, 노동시장에서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비행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으나, 연구 결과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그 자체로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이 비행집단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노동현장에서 부당대우를 당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비행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을 위하여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그 자체로 사회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생산할 것이라고 가정하여서는 안 되며, 노동현장에 필요한 청소년의 대처 능력을 키우고 노동현장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마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가출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인권

*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서론

집을 떠난 청소년은 일차적인 보호체계인 가족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한다. 이 때, 가출 청소년에게 절도, 성매매 등 비행은 집밖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되곤 한다(김지혜, 2003; 민가영, 2003; McCarthy & Hagan, 1991, 1992; Baron & Hartnagel, 1998). 한편 가출 청소년이 일을 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합법적인 대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생존의 위협에 당면한 가출 청소년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이란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형태의 두 가지 주요 생존전략일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의 실패가 비행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Baron & Hartnagel(1998)은 가출 청소년이 사회에서 “단절된 기회 구조(blocked opportunities structure)”를 경험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좌절이 청소년을 절도, 폭력, 약물남용 등 비행으로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은 합법적 생계유지의 기회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바꾸어 말하면, 가출 청소년의 비행이 노동시장에서의 단절된 기회에 의해 유발되므로 가출 청소년이 노동시장 참여에 성공한다는 것은 비행에의 진입 위험을 상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가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낮은 학업성취도, 흡연이나 음주, 약물사용, 절도, 폭력, 기타 비행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성호, 2003; Steinberg & Dornbusch, 1991; Bachman & Schulenberg, 1993; Wright et al., 1997).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된 것으로,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학교생활에의 참여기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출 청소년의 노동참여 효과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이 노동시장을 통하여 비행집단과 관계를 맺어 비행행동을 학습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참여가 비행을 예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노동참여가 오히려 비행을 촉진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련하여 실시된 연구는 찾기 어렵고 그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여러 가출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주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청소년의 취업을 지도하는 방안이 제기되며 학교에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할 때,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경험의 영향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가출 청소년의 노동

가출 청소년은 집을 떠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 가운데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취업)를 해서 돈을 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6%로, 집에서 훔치거나, 친구나 선배에게 빌리거나, 훔치거나 협박해서 돈을 빼앗는다고 응답한 청소년 보

다 많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 501명 가운데 가출 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2.5%로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가출을 많이 한 청소년일수록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많았다. 이 가운데에는 술집이나 단란주점에서 일하거나, 성매매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비교적 건전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율을 산출하면 46.5%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선행 연구에서 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30%내외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학생 청소년 가운데에서도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다고 하는 실업계 학생의 경우 40% 전후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도종수, 2001; 이형하·이용교, 2002).

가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요 장소는 주유소, 신문이나 전단지 돌리기, 커피숍,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 종류의 구성은 학생 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보고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성 비율로 볼 때 학생 청소년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 44.4%, 음식점 서빙 13.1%, 신문배달 5.6%, 패스트푸드점 4.5%, 주유소 2.8% 등으로 신문배달과 전단지돌리기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다른 종류에의 참여경향은 낮은데 비해(도종수, 2001), 가출 청소년의 경우 주유소 33.9%, 신문이나 전단지 돌리기 27.0%, 커피숍·편의점·패스트푸드점 13.3% 등으로 나타나(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많고 숙식제공이 가능한 주유소에 취업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과 보호자 동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가출 청소년이 “이왕이면 정당하고 떳떳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혜,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가출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참여

한 경험을 가지는데, 이것은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가출 청소년은 쉽게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용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학생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25.4%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고, 15.9%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참여연대, 2002), 가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이 가출했다는 상황을 악용하여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제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등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을 우려가 있다(김지혜, 2001, 2005; 김향초, 2001; 권병덕, 2002).

이상과 같이 많은 가출 청소년이 노동시장 참여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부당 대우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의 구체적인 현황을 밝히고 영향을 고찰한 경험적인 조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경험의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가출 청소년의 경우, 노동 이외의 시간에 학업을 수행함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학생 청소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노동 경험이 가출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가출 청소년 노동과 비행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청소년의 자립심, 책임감, 사회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이 초기 연구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가 실시되면서 청소년 노동이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비행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기 시작하였

다(문성호, 2003; Safyer et al., 1995). 특히 장시간 노동에 참여하거나 미숙련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비행이 많고, 약물남용에 대해서는 노동참여에 따른 비행의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문성호, 2003; Mortimer et al., 1996; Valois et al., 1999).

그런데 가출 청소년의 노동은 청소년이 생계를 위해 비행을 채택할 필요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Baron & Hartnagel(1997)은 가출 청소년의 경제적 조건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낮은 소득이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McCarthy와 Hagan(1992), Baron(1999) 등의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실업상태가 성매매와 약물사용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계를 위한 합법적인 자원의 부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청소년은 전통적인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대신 유혹적인 대안으로 비행을 채택하기 쉽다(김지혜, 2005), 혹은 빈곤의 상태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Baron & Hartnagel, 1997). 그러나 한편으로 Baron과 Hartnagel(1997)의 연구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도 노동 경험이 오히려 비행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가출 청소년이 경험하는 노동이 재미없고, 숙련을 요하지 않으며, 낮은 임금을 주는 일들이며, 이러한 일을 한 결과 노동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비행적인 대안이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가출 청소년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비행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비행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반되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 집단에 대해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청소년 노동에 관한 선행 연구와 가출 청소년이라는 집단의 특징을 감안하여, 노동시장 참여경험과 비행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의 가출 관련 특징을

고려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출 청소년에게 노동참여는 학생 청소년의 노동참여가 학교생활에의 참여와 상쇄효과가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가출 관련 특징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참여경험의 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가출기간, 가출횟수 등의 상황은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비행의 수준을 높이는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다.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가 비행을 증가시키는 관계를 설명하는 한 가지 논리는, 청소년이 일을 하면서 비행에 관여하고 있는 또래를 만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며 이들과 어울리면서 비행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Safyer et al., 1995). 또한 일을 하는 동안 부모의 통제가 감소하고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는 것이 잠재적으로 비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Wright, Cullen, & Williams, 1997).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 참여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비행집단이 증가하거나 사회적 유대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현장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고려한다. 청소년들은 낮은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어 있다(참여연대, 2002). 임금체불, 강제해고, 장시간 근로, 강제노역 등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주요한 부정적 경험으로서(참여연대, 2002),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한 청소년은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비행적인 대안을 채택하거나(김지혜, 2005),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약물사용이나 폭력과 같은 비행을 경험할 수 있다(Safyer et al., 1995). 이와 같이 노동의 질적인 측면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가출 청소년으로 하였다. 여기서 가출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가출 청소년은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표본들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여 확률적 표집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접근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의도적 표본추출을 시행하고 횡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전국의 가출청소년쉼터, 아동상담소, 보호관찰소, 직업훈련기관 등 23개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 총 519부를 배포하여 396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연구대상자 기준에 따라 가출의 경험 이 있고 현재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으며 연령 기준에 적합한 설문지 총 1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연구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비행으로서, 가출 청소년이 주요하게 경험하는 비행인 절도·강도, 폭력, 성매매, 약물남용 등의 행위를 포함한 개념으로 비행을 정의하고(원혜옥, 2001; 김지혜, 2003) 총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절도·강도와 폭력은 김준호·박정선(1993), Whitbeck과 Simons(1993), Baron과 Hartnagel(1998)이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각각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절도·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음식을 훔침, 돈이나

물건을 훔침,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강제로 돈을 빼앗음 등의 경험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림, 패싸움을 함, 다른 사람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처를 줌 등의 경험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성매매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Whitbeck 등(1997)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가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성인과 원조교제를 함, 윤락업소에서 일함, 음식이나 잘 곳을 얻기 위해 성적 행동을 함,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함 등의 경험을 묻는 네 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준호·박정선(1993)에서 사용한 문항과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가출 청소년 약물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박광만·박미정, 1996;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술, 담배, 흡입제(본드 등)의 사용 경험을 묻는 세 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음(1점), 어쩌다 한 번(2점), 가끔(3점), 자주(4점), 거의 항상(5점)으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개념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전체 .810, 절도 .792, 폭력 .774, 약물남용 .643, 성매매 .815 등으로 나타났으며,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 가운데 청소년의 노동경험과 관련된 변수로서, 가출 중 노동경험과 부정적 노동경험을 측정하였다. 첫째, 가출 중 노동경험은 집에서 나온 후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1점)와 없다(0점)로 측정하였다. 이 때,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성매매를 하는 윤락업소를 제외한 주유소, 편의점 등의 일반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부정적 노동경험은 약속한 대로 돈을 받지 못함, 강제로 해고당함,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도록 강요당함,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당함 등의 경험을 묻는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음(1점), 한두 번(2점), 여러 번(3점), 많이(4점)로 설정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723으로 확증적 요인 분석의 결과 수렴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관련 독립변수로서 가출기간과 가출횟수를 포함하였다. 가출기간은 청소년이 가출하여 집밖에서 지낸 총 기간을 묻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1주일 미만(1점), 1주일~1개월 미만(2점), 1개월~6개월 미만(3점), 6개월~1년 미만(4점), 1년~3년 미만(5점), 3년 이상(6점)으로 구성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기간이 길다고 보았다. 가출횟수는 이번을 포함해서 가출한 것이 모두 몇 번인지, 처음(1점), 2번(2점), 3~4번(3점), 5~9번(4점), 10번 이상(5점)으로 측정하였다.¹⁾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비행집단과 사회적 유대를 측정하였다. 비행집단은 가출 후 가깝게 지낸 사람들 가운데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험이 있는 사람, 본드, 가스, 환각제 등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돈이나 물건을 얻으려고 성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각각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다섯 개 항목에 대해, 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1점), 1~2명(2점), 3~5명(3점), 6~10명(4점), 11~19명(5점), 20명 이상(6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유대는 주류 사회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개념화하여, 청소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 선배, 후배, 형제, 사촌 등과 부모, 보호자, 친척,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공무원, 전문가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일곱 개 문항에 대해 비행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주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비행집단 .682, 사회적 유대 .632이고, 확증적 요인분석의 결과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1) 정보의 정확성과 분석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가출기간과 가출횟수를 실수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실제로 가출기간과 가출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장기간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실수를 계산하기 어려워 오히려 응답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교육연수, 가족의 경제적 수준, 집에서의 노동 경험, 집에서의 부정적 노동경험, 집에서의 비행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연령은 태어난 연도와 월을 기입하도록 하여 만 연령을 환산하였고, 교육연수는 청소년이 교육을 이수한 연수를 실수로 측정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1점), 어려운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넉넉한 편이다(4점), 매우 넉넉한 편이다(5점) 등으로 청소년의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였다. 집에서의 노동여부는 집에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있다(1점)와 없다(0점)로 측정하였고, 집에서의 부정적 노동경험은 가출 중 부정적 노동경험을 측정한 것과 동일한 네 가지 문항에 대해 집에서 일하는 동안의 경험을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집에서의 비행 경험은 본 연구에서 비행 행동으로 측정하는 절도, 폭력, 약물남용, 성매매 등의 행동에 대하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전혀 없음(1점), 어쩌다 한 번(2점), 가끔(3점), 자주(4점), 거의 항상(5점) 등으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에는 연구대상자와 주요변수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적 통계 분석,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과 t-검정,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남자 81명(40.9%), 여자 117명(59.1%)이며, 연령별로는 15세 68명(34.3%), 16세 44명(22.2%), 17세 54명(27.3%), 18세 32명(16.2%)로 연령평균은 16.3세(표준편차 1.1)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수준이 143명(73.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수준이 35명(16.9%), 초등학교 수준이 19명(9.7%)으로, 교육연수의 평균은 8.6년(표준편차 1.5)이었다. 가출기간은 1주 이하가 33명(16.8%), 1주 이상 1개월 미만 27명(13.7%),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4명(22.3%), 6개월 이상 1년 미만 36명(18.3%), 1년 이상 3년 미만 40명(20.3%), 3년 이상 17명(8.6%)으로 나타났다. 가출횟수는 1번 23명(11.6%), 2번 25명(12.6%), 3~4번 48명(24.2%), 5~9번 38명(19.2%), 10번 이상 64명(32.3%)이었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어려운 편이거나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44명(50.7%), 보통 109명(38.4%), 넉넉하거나 매우 넉넉한 편 31명(10.9%)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81	40.9
	여자	117	59.1
연령	15세	68	34.3
	16세	44	22.2
	17세	54	27.3
	18세	32	16.2

구분		빈도	비율(%)
교육연수	4~6년	19	9.7
	7~9년	143	73.3
	10~12년	35	16.9
가출기간	1주 이하	33	16.8
	1주~1개월미만	27	13.7
	1~6개월미만	44	22.3
	1개월~1년미만	36	18.3
	1~3년미만	40	20.3
	3년이상	17	8.6
가출회수	1번	23	11.6
	2번	25	12.6
	3~4번	48	24.2
	5~9번	38	19.2
	10번 이상	64	32.3
가족의 경제적 환경	매우 어려운 편	52	18.3
	어려운 편	92	32.4
	보통	109	38.4
	넉넉한 편	28	9.9
	매우 넉넉한 편	3	1.0

<표 2>는 연구 대상자의 비행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보여준다. 연구 대상자 가운데 가출 중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4명(91.6%)이었고, 절도, 폭력, 약물남용, 성매매 등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각각 118명(59.5%), 119명(60.0%), 175명(88.8%), 64명(33.0%)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집에서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8명으로 65.0%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비행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청소년이 60명(30.8%)이고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경우가 135명(69.2%)이었다. 한편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청소년이 21명(11.0%),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경우가 170명(89.0%)이었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비행경험과 사회적 관계

빈도 (%)

	있다 ^a	없다	전체
가출 중 비행경험	174(91.6)	16(8.4)	190(100.0)
절도	118(59.5)	79(40.5)	195(100.0)
폭력	119(60.0)	78(40.0)	195(100.0)
약물남용	175(88.8)	22(11.2)	197(100.0)
성매매	64(33.0)	130(67.0)	194(100.0)
집에서의 비행경험	128(65.0)	69(35.0)	197(100.0)
비행집단	135(69.2)	60(30.8)	195(100.0)
사회적 유대	170(89.0)	21(11.0)	191(100.0)

a. 비행집단과 사회적 유대의 경우, 없다는 0명, 있다는 1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노동시장 참여경험

<표 3>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가운데 가출 중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19명(60.1%),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9명(39.9%)이었다. 청소년이 경험한 직업의 종류 수는 1가지 36명(28.1%), 2~3가지 55명(43.0%), 4~10가지 26명(20.3%), 11가지 이상 11명(8.6%)이

〈표 3〉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경험

구분		빈도	비율
가출중 노동시장참여경험	있다	119	60.1
	없다	79	39.9
가출중 참여한 직업의 종류	1가지	36	28.1
	2~3가지	55	43.0
	4~10가지	26	20.3
	11가지이상	11	8.6
집에서의 노동시장참여경험	있다	93	47.2
	없다	104	52.8

었다. 이 청소년들 가운데 집에서 지내는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3명(47.2%),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4명(52.8%)이었다.

집에서와 가출 중 노동참여 경험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집에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0명(59.3%)이고, 집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소년이 48명(40.7%)이었다. 한편,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 가운데 집에서는 노동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3명(29.1%), 집에서도 노동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56명(70.9%)이었다. 따라서 집에서 노동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이 반드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분포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chi^2=17.362$, $p=.000$) 집에서 노동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가출 상태에서도 노동참여 경험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집에서와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 경험

빈도(%)

구분		집에서의 노동시장 참여경험			χ^2
		없다	있다	전체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	없다	56(70.9)	23(29.1)	79(100.0)	17.362**
	있다	48(40.7)	70(59.3)	118(100.0)	
	전체	104(52.8)	93(47.2)	197(100.0)	

청소년이 가출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동안 경험한 부정적 노동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문항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5>와 같았다.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8명 가운데 약속한 대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강제로 해고당하거나,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당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있는 청소년은 각각 41명(34.7%), 22명(18.6%), 30명(25.6%), 21명(18.1%)

로 나타났다.

〈표 5〉 가출 중 부정적 노동경험

빈도(%)

항목	전혀없음	한두 번	여러번	많이	전체
약속한 대로 돈을 받지 못함	77(65.3)	35(29.7)	4(3.4)	2(1.7)	118(100.0)
강제로 해고당함	96(81.4)	19(16.1)	2(1.7)	1(0.8)	118(100.0)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당함	87(74.4)	15(12.8)	12(10.3)	3(2.6)	117(100.0)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당함	95(81.9)	11(9.5)	6(5.2)	4(3.4)	116(100.0)

주)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n=118)에 대한 분석결과임.
무응답은 제외.

청소년의 부정적 노동경험에 대해 동일사례의 집에서와 가출 중의 경험을 비교한 결과, <표 6>과 같이 집에서와 가출 중 모두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n=70)의 경우 가출 중의 부정적 노동경험 수준이 집에 있을 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3.814$, $p=.000$). 항목별로 살펴보면, 강제로 해고당하는 것 외에 약속한 대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당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경험은 가출 중에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집에서와 가출 중 부정적 노동경험 평균비교

항목	평균(표준오차)		t
	가출 중	집에 있을 때	
부정적 노동경험	5.35(1.89)	4.58(.95)	3.814**
약속한 대로 돈을 받지 못함	1.44(.67)	1.17(.38)	3.575**
강제로 해고당함	1.24(.58)	1.13(.48)	1.730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당함	1.43(.75)	1.17(.42)	2.848**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당함	1.28(.70)	1.10(.39)	2.046*

주) * $p<.05$. ** $p<.01$. 집에서와 가출 중 모두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n=70)에 대한 분석결과임.

2.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경험과 비행

청소년의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 여부와 비행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t-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가출 중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의 유형별로 볼 때 절도, 폭력, 약물남용의 수준이 노동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성매매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청소년의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과 비행: t-검정

	평균(표준편차)		t
	노동경험 있다(n=119)	노동경험 없다(n=79)	
가출 중 비행경험	25.34(7.29)	19.93(5.8)	5.427**
절도	5.36(2.79)	4.31(1.78)	3.191**
폭력	5.43(2.56)	4.01(1.46)	4.899**
약물남용	8.79(2.55)	6.65(2.78)	5.569**
성매매	5.67(2.96)	5.11(2.66)	1.338

**p<.01.

다른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8>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과 함께 연령, 성별, 교육연수, 가정의 경제적 수준, 집에서 노동시장 참여경험, 집에서 비행경험 등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 1>의 분석 결과, 청소년의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 경험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0$, $p=.000$). <모델 1>에 가출 관련 독립변수로서 가출기간과 가출횟수를 투입한 <모델 2>의 분석 결과, 가출기간이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가출관련 변수를 고려한 후에도 청소년의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0$, $p=.004$). 마지막으로 <모델 3>은 <모델 2>에 사회적 관계 관련 변수인 비행집단과 사회적 유대를 투입

한 것으로, 분석 결과 비행집단이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청소년의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사라졌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경험에 있을 때 비행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나, 이것은 가출 기간과 비행집단의 효과로 설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과 비행: 다중회귀분석

변수	가출 중 비행경험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	3.743	.120**	2.502	.080**	1.359	.043
연령	.517	.348**	.216	.145	.796	.119**
성별	-.622	-.020	-1.135	-.036	.125	.019
교육연수	-.358	-.130	-.114	-.042	.324	.218
가정의 경제적 수준	1.035	.108*	1.256	.131**	1.428	.041
집에서의 노동시장 참여경험	.642	.018	1.125	.032	-1.131	-.036
집에서의 비행경험	2.356	.572**	2.116	.514**	-.262	-.095
가출기간			.985	.149**	1.367	.332**
가출횟수			.337	.052	.919	.096*
비행집단					.968	.286**
사회적 유대					.008	.004
Adjusted R ²	.955		.958		.966	

*p<.05. **p<.01.

비행의 하위유형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출관련 변수와 사회적 관계 변수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약물남용에 대해서만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5$, $p=.016$).

〈표 9〉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과 비행의 하위유형별 회귀분석

변수	절도		폭력		약물		성매매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경험	.000	.000	.487	.071	.936	.085*	-.061	-.008
연령	-.004	-.012	-.014	-.042	.126	.243	.194	.516
성별	-1.308	-.183**	-.374	-.054	-.591	-.053	1.355	.170**
교육연수	.049	.078	.000	.000	-.001	-.001	-.252	-.363
가정의 경제적 수준	.214	.099	.173	.083	.244	.073	.169	.070
집에서의 노동시장 참여경험	.076	.010	.289	.037	.502	.041	.768	.087
집에서의 비행 경험	.187	.202*	.497	.548**	.395	.276**	.284	.275*
가출기간	.220	.146	.038	.026	.200	.086	.268	.160
가출횟수	.041	.027	-.076	-.053	.388	.169**	-.193	-.116
비행집단	.406	.530**	.253	.339**	.212	.180**	.107	.126
사회적 유대	.016	.033	.011	.024	-.063	-.086	.036	.069
Adjusted R ²	.887		.901		.934		.815	

*p<.05. **p<.01.

마지막으로, 부정적 노동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자 가운데 가출 중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8명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와 함께 가출관련 변수와 사회적 관계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가출 중 부정적 노동경험은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1$, $p=.017$). 그러나 각 비행의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절도, 폭력, 약물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노동경험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매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76$, $p=.000$).

〈표 10〉 가출 청소년의 부정적 노동경험과 비행: 다중회귀분석

	비행		절도		폭력		약물		성매매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가출 중 부정적 노동경험	.735	.151*	-.086	-.077	.109	.099	.050	.030	.676	.576**
연령	.285	.177	-.116	-.312	.023	.064	.258	.459	.118	.304
성별	-1.687	-.047	-1.539	-.185**	-.427	-.052	-.395	-.032	.811	.093
교육연수	.143	.048	.263	.385	-.018	-.026	.086	.083	-.181	-.253
가정의 경제적 수준	-.657	-.111	.089	.065	-.057	-.042	-.472	-.228	-.143	-.100
집에서의 비행경험	1.738	.407**	.230	.234	.604	.625**	.550	.370**	.308	.299
집에서의 부정적 노동경험	.405	.039	.082	.034	.018	.008	-.040	-.011	.203	.081
가출기간	.412	.062	.248	.161	-.033	-.022	.139	.060	.000	.000
가출횟수	-.327	-.048	-.150	-.096	-.190	-.123	.276	.116	-.308	-.186
비행집단	1.008	.301**	.499	.642**	.306	.401**	.267	.228**	-.015	-.018
사회적 유대	.051	.024	.028	.056	.008	.017	-.063	-.083	.083	.159
Adjusted R ²	.969		.877		.898		.950		.832	

*p<.01, **p<.01

V. 논의

연구 결과,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많은 가출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이 연구에서 가출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출 중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30%내외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동일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집에 있는 동안에 비해 가출 중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욱 크며, 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출 중 노동시장 참여 경향이 더욱 큰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노동시장에 참여한 가출 청소년 가운데 많은 청소년이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가출 청소년의 임금체벌

과 장시간 근로경험의 비율은 각각 34.7%, 25.6%로, 이는 학생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각각 25.4%, 15.9%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참여연대, 2002). 또 동일한 청소년이라도 집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 노동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가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부당 대우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그 자체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며, 청소년의 비행은 비행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설명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노동시장 참여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가출기간과 비행집단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높은 비행수준이 관찰되는 것은, 가출기간이 오래된 청소년일수록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있고 비행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는 외부효과이거나, 노동시장 참여의 직접적 영향이 아닌 노동시장 참여를 통하여 획득된 비행집단과의 관계를 통한 효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약물남용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참여 자체의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약물사용을 촉진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Safyer et al., 1995).

넷째,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가출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연구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노동시장 참여경험과 비행 사이에 나타나는 정적 관계에 부정적 노동경험에 의한 영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은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부정적 노동경험에 노출되고 그 결과 노동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유용한 대안 혹은 좌절의 결과로서 비행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정적 노동경험의 영향은 성매매에 대해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청소년이 성매매에 참여하는 것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적 노동 경험에 대해 성매매 관련 업종에 대한 취업 경험을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관련 일을 하였던 청소년이 그러한 취업 현장에서 경험한 것에 관련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해 더욱 자세히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가출 청소년 가운데 많은 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긍정적인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을 위한 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비행 행동은 그 동안 크게 논란이 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주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므로 실천가들은 가출 청소년이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보이는 노력의 가치를 깨닫는 한편, 노동시장이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주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현장중심의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노동시장을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주요한 자원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현장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긍정적인 노동 동기를 건강한 사회적응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출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출 청소년은 집을 떠나 있는 상태이므로 부모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청소년이 부당대우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일 수 있다.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적어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겪는 부당 대우에 대해 옹호하는 전문 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부당 대우가 사라

지도록 청소년이 주로 참여하는 노동현장부터 개선시키는 노력을 실시하며, 가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이 부당대우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구제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현장에서의 부당대우 뿐만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획득되는 사회적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행집단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김지혜, 2005). 따라서 노동현장이 비행집단과 관계를 형성하고 비행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비행집단과의 관계가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행에의 참여기회도 증진시키는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보인다. 한편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약물남용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청소년이 노동 그 자체에서 얻는 스트레스의 효과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다고 보인다. 최근 가출 청소년을 위한 주요 서비스 대안으로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그 자체로 사회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생산할 것이라고 가정하여서는 안 되며,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취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알고, 비행집단과 만날 때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가려내고 또래 압력에 대처하는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요컨대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그 자체로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비행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으나, 청소년이 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해 비행집단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노동현장에서 부당대우에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려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연구에서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미래와 관련이 없고 재미없는 노동현장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Safyer et al., 1995; Baron과 Hartnagel, 1997).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이 노동시장 참여경험을 통해 진로를 계획하고 건강하고 희망적인 노동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청소년 개인이 희망하는 미래의 직업과 연관되어 있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직업 현장을 발굴하거나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표집이 어려운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경험의 영향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을 실시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횡단적, 회고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개연성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결과가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회귀 분석의 분석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단선적 관계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집에서의 비행 경험, 비행 집단 등은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경로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면, 변수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하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의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을 활용한다면 간접적인 효과를 발견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도록 하려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는 노동 관련 긍정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권병덕(2002). 참여연대 설문조사와 사례로 본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 토론회. 서울: 참여연대사회인권팀.
- 김준호·박정선(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2003). 가출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4호, pp. 99-121.
- 김지혜(2005).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향초(2001).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서울: 나눔의 집.
- 도종수(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대책. 사회복지정책, 제13호, pp. 104-129.
- 문성호(2003). 학생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0호 제3호, pp. 83-103.
- 민가영(2003). 가출, 지금 거리에 ‘소녀’는 없다. 서울: 우리교육.
- 박광만·박미정(1996). 가출부랑아에 관한 조사연구: 열매교실을 중심으로. 동 부아동상담소 10년 개소기념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사례연구 모음집, pp. 351-375.
- 원혜옥(2001). 가출로 인한 청소년범죄의 유형 및 대처방안.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pp. 217-241.
- 이형하·이용교(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 연구, 제4권 제2호, pp. 89-100.
- 참여연대(2002).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 토론회. 서울: 참여연대사회인권팀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 전국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연구.
- Bachman, J. G. & Schulenberg, J.(1993). How part-time work intensity relates to drug use, problem behavior, time use, and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eniors: Are these consequences or merely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No. 2, pp. 220-235.
- Baron, S. W. & Hartnagel, T. F.(1997). Attributions, affect and crime:

- Street youths' reactions to unemployment. *Criminology*, Vol. 35 No. 3, pp. 409-434.
- Baron, S. W. & Hartnagel, T. F.(1998). Street youth and crimi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5 No. 2, pp. 166-192.
- Baron, S. W.(1999). Street youths and substance use: The role of background, street lifestyle, and economic factors. *Youth and Society*, Vol. 31 No. 1, 3-26.
- McCarthy, B. & Hagan, J.(1991). Homelessness: A criminogenic situatio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1 No.4, pp. 393-410.
- McCarthy, B. & Hagan, J.(1992). Mean streets: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situational delinquency among homeless youth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 No. 3, pp. 597-627.
- Montimer, J. T., Finch, M. D., Rye, S., Shanahan, M. J., & Call, K. T.(1996). The effect of work intensity on adolescent mental health, achieve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New Evidence from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Vol. 67, pp. 1243-1261.
- Safyer, A. W., Leahy, B. H., & Colan, N. B.(1995). The impact of work on adolescent development. *Families in Society*, Vol. 76 No. 1, pp. 38-45.
-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Negative correlates of part-time employment during adolescence: Repl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No. 2, pp. 304-313.
- Valois, R. F., Dunham, A. C., Jackson, K. L., and Waller, J.(1999).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and substance abuse behaviors among public high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25 No. 4, pp.256-263.
- Whitbeck, L. B. & Simons, R. L.(1993). A comparison of adaptive

strategies and patterns of victimization among homeless adolescents and adults. *Violence and Victims*, Vol. 8, pp. 135-152.

Whitbeck, L. B., Hoyt, D. R., & Ackley, K. A.(1997). Abusive family backgrounds and later victimization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7 No.4, pp. 375-392.

Wright, J. P., Cullen, F. T., & Williams, N.(1997). Working while in school and delinquent involvement: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Crime & Delinquency*, Vol. 43 No. 2, pp. 203-221.

ABSTRACT

Association Between Work and Delinquency among Runaway Youth

Kim, Ji-Hy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unaway youth's work experience and their delinquent behaviors. Based on the data from 198 runaway yout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 primary concern was invested in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and delinquency while youth were on the run, but runaway length, times of runaway, deviant networks, social networks, and employee abuse were also considered as external and/or mediating factors. Although runaway youth's employment was expected to protect them from engaging in delinquency as a means to survival on the street, results revealed that employment didn'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delinquent behaviors. Moreover, the study findings imply that runaway youth at work are highly vulnerable to delinquency because of increased contact with deviant networks and exposure to maltreatments at work. This suggests that it can be harmful if we encourage runaway youth to work assuming its natural positive effect, and that considerate services are needed to develop youth's social skills to cope with situations at work and to create safe labor environments for youth.

Key Words : runaway youth, employment, juvenile delinquency, youth rights

투고일 : 10월 29일, 심사일 : 12월 7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

^{*} Daeji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